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 126:5-6)**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성큼 다가온 가을에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길 소망합니다.

이곳은 기온이 조금 내려갔지만 여전히 36 도를 넘나드는 무더운 날씨의 연속입니다.

저희는 7/3 일에 비즈니스 비자를 받고 인도에 들어왔습니다. 새롭게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북부 마니푸르 주에서 이곳으로 일자리를 찾아온 형제 자매들을 소개받았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딴굴'과 '쿠부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9 명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지난달 7/26 일 부터 이들과 함께 주일 오후에



오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소통이 완벽하게 되진 않지만 사양은 이들의 각각의 언어로 부르며 기쁨으로 오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수아라는 28 세의 젊은 모회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아버지와 형이 모사이며 동생은 교회음악 사역자입니다. 지역이 다른 곳의 두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가족입니다. 이들 두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아버지 모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조수아 모사를 집으로 초대하여 교제 중에 사교의 비전과 사역의 방향성을 나눴습니다.



기아대책의 중점 사역인 어린이 개발사역(CDP)은 파송후 3 년이 지나야 시작을 할 수 있으며, 어린이

결연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8 월 이후에 CDP 를 시작하기로 계획하며 교사와



방법 등을 교회에서 함께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CDP 사역은 '방과 후 학교'처럼 교회에서 운영하기로 계획하였는데 어린이 사역과 지역교회 영혼구원 사역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 믿습니다.

제자훈련과 교회건축에도 함께 동역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등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먼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가정의 섬김의 삶과 사역 가운데 타밀족속의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도록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1. 인도에 믿음의 문을 크게 열어 주소서- 정치, 사회적인 핍박이 사라지고 법과 제도의 변화
2. 제자훈련을 통하여 CDP 사역을 위한 믿음과 헌신이 큰 교사를 허락주소서.
3.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건축하게 하소서 - 마을과 땅을 보여주소서.
4. 타밀어의 진보를 위한 언어의 능력을 허락주소서.
5. 은아의 대학 졸업과 진로, 예찬이의 병영생활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소서.

2015. 8. 27.

타밀나두에서 정장환, 이혜경 드림